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2년도 목회 지침: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표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새해엔 성도의 가정에 주님 은총 함께 하길



이병화 장로 그림

당회장 새해 인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풍족히 내릴 것을 삼가 기원합니다.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 해의 죄와 허물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늙은이가 젊은이로 되고, 남자가 여자로 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인데, 연륜 때문에 피부가 거칠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또 “새해”라고 해서 순식간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말단 직원이 유명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희망과 기대가 절절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분신

입니다. 내가 한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십자가와 연관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입니다. 허물없는 사이일지라도 언행심사를 단정히 할 때 그의 인격이 고매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1992년의 한 해는 무척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일과 현상 유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도 활동보다는 프

하고, 안정권에 진입한 새해에 들면서 빈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자는 것입니다. 1부예배부터 4부예배까지 본당 7천석이 꽉 차도록 교회를 중심한 이웃에 복음화 확산 작업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할 때, 교인 수는 배가 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

고 화합으로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줄 때, 이에 “난 못하겠다.”는 거부 의식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삼가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면서 화합 차원의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충현의 성도 여러분들이 장소를 개의치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족한 이 중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해줄 때에 충현교회는 더욱 부흥 성장할 것이며 1992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일이 형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새해 아침
당회장 집무실에서
신성종 목사

92년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네 번의 선거가 있고, 외교적으로 남북 화해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지 적자가 예견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될 조짐이고, 사회와 문화적으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우월감이 팽배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목적 없는 경쟁 심리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런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도 자만심에 빠져 안

로그로 운영에 더욱 치중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예측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성도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합니다.

91년도 하반기의 시련을 극복

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 교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계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하며, 성령이 넘쳐흐르는 초대 교회의 헌신적 모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불평불만을 뿌리채 뽑

충현강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1:1~20)

1 서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원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였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3절에 그 첫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입니다(계1:1).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계시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계시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 그러므로 과거 계시, 현재 계시, 미래 계시를 분명히 구별하게 되면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는 과거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현재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며, 4장부터 마지막장까지는 미래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품 속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은 천사나 마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모두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첫 단계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천사에게 보여주셨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1:1)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천사가 대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계시의 공식을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사기꾼입니다.

2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4절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데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등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이 일곱 교회는 각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교회는 초대 교회로, 빌라델비아교회는 19세기의 교회로, 라오디게아교회는 변질한 말세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일곱 시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계1:4)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성자의 몸으로 계셨으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심

우리들은 흔히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제일 먼저 현재가 나오고 다음에 과거와 미래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시간을 수직적으로 받아들이므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장래도 다 보십니다.

또 4절에는 “그 보좌에는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일곱 가지 특성을 들어 성령을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하신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요14:17; 롬1:4, 8:2; 엡1:13; 히9:14, 10:29; 벧전4:14).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변조하고 거짓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진리의 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들의 왕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밧모섬은 소아시아의 남서쪽 에게해에 있는 돌섬으로 죄수들의 유형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밧모섬으로 추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계1:9). 그리스도를 인하여 환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해주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들이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3 계시의 내용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계1:10)

통하여 사역을 알리심

보통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로 예약한 날이 바로 주의 날, 즉 주일입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였고(요20:22),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행2:1). 예쁜 은혜의 날에 요한도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환상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울렸고 신약 시대의 나팔은 택한 백성을 들어올릴 때 울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1:11)

11절에는 성령의 지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적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시의 내용을 써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서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을 들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1:12, 13)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 계셨을 때와는 달리 너무 위엄 있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금은 원래 왕에게 주는 선물이고, 금띠는 왕이 두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며 왕, 신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1:14~16)

하얗다는 말은 성결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분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풀무에 달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이 범죄하였을 때 성난 소리로 우리들을 징책하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히4:12), 이것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은 이런 영광 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도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사랑의 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고 “두려워말라”고 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서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마크 사용 안함

약 3년간 사용했던 총현교회 마크는 오늘부터 일제히 사용하지 않는다. 그 동안 각종 팸플렛, 유인물, 주보, 그리고 모든 소모품에 그려졌던 총현 마크는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인쇄된 것도 폐기 처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도 봉투나 회지에 사용되었던 총현 마크를 없애고 티셔츠, 훈련복, 우산 비닐, 완장, 이름표 등에 삽입된 마크를 제거하기 바란다.

없어지는 행사

지난해까지 필요불가결하게 많았던 행사들이 올해부터는 없어지거나 축소된다.

없어지는 행사로는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 총현제자훈련, 흥해작전, 기독 청년 미래 지도자 대회, 비전2000운동, 김치세미나, 동구권 복음화 대회, 총현바자회 등이다.

그 이외에 총현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되고, 교회 설립 기념 행사인 성경압송대회, 성경경연대회, 선교교변대회도 격년마다 개최되므로 금년에는 없다.

기도실 24시간 개방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도실이 마련되었다. 남자 성도는 본당 109호(나사렛홀 입구 왼쪽방)이며, 여자 성도는 본당 102호(갈릴리홀 뒷편)이다. 그리고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후 10시 30분부터는 교육관 107호(사랑부실)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3대 교회 목표

92년 3대 교회 목표는 ·천국 일꾼을 키우자,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로 결정되었다. 모든 공식 기도예 3대 교회 목표를 위하여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스테반회
안수집사회로 명칭 변경

안수집사들의 기도 모임인 스

및 새신자 담당 전도사로 일해왔다.

·김영구 목사 사임

독일 유학 관계로 본 교회 부목사직을 91년 12월 18일부터 사임하였다.

·정기봉 목사 대기

제2교구 지도 목사인 정기봉 목사는 판 지역 교회 청빙에 따라 수속 관계로 본 교회 모든 보직을

·성경연구원 및 교회성장연구
원 지도

김희수 목사가 성경연구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부지사로 임명되었다.

위원장 임명

감사위원장에 우기전 장로가 임명되었으며, 장학회장엔 김의철 장로가, 제2교구장에 이창호 장로

직원 채용

비서실 여직원으로 박은정 양(27세)을 채용하였다. 박 양은 이대 비서학과 출신이다.

컴퓨터 시설 확충

본 교회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하여 컴퓨터를 새롭게 구입, 터미널 형식의 자동 전산 처리능력을 확충한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우리 교회 모든 교적 처리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되게 되며, 교인 등록 업무가 쉽게 처리된다.

인쇄 시설 현대화

교회는 복종하는 인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최첨단 인쇄기를 도입한다.

약 3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도입케 되는 인쇄기는 우리 교회 주보, 주간총현, 주간총현, 단행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쇄물을 소화할 수 있다.

91 교사 총회
은혜롭게 마쳐

1991년 교사 총회가 지난해 구랍 26일 저녁 7시 갈릴리홀에서 1, 2, 3교육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 앞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김성운 목사 사회로 진행, 강은원 장로의 기도와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 후, 교회학교 교장이며 당회장인 신성종 목사가 "교사로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 이후 3교육위원장 및 지도 목사에 대한 인사가 있었으며, 각 부서별로 각 부 보고, 임원 교체, 임직원 임명, 신임 교사를 위한 각 부 소개 등이 있었다.

우리 교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우리 총현교회는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전도"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내 집을 채우는" 대역사가 진행된다.
이제 각 부분별로 소개한다.

대만회는 당회 결정에 따라 "안수 집사회"로 명칭을 바꿨다.

교역자 임면

·여전도사 청빙

정년으로 은퇴하는 구명신 전도사 후임으로 신동자 전도사(53세)가 새로이 청빙되었다. 신동자 전도사는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청량교회와 남교회에서 심방

면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김태준 목사 제2교구 지도

정기봉 목사 보직 해제에 따라 김태준 목사가 제2교구 지도를 맡기로 하였다.

·세례부 지도

홍창민 목사가 교회학교 세례부 지도로 임명되었다.

·제2교육위원회 지도

김양홍 목사가 제2교육위원회 지도로 임명되었다.

가 임명되었다.

교회학교 여부감 교체

초등2부 여부감 조옥희 집사를 면하고, 대학부 부감인 강순희 집사를 초등2부 여부감으로, 영아부 여부감 김경희 집사를 대학부 여부감으로 교체 임명하였으며, 영아부 부감에는 이남숙 집사를 새로이 임명하였다.

장로칼럼

더욱
성장하는 교회

윤명식 장로.
(당회서기)

새해 인사를 드린다.

금년 한 해도 성도의 가정엔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말 비공식 자리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새해는 교회 성장과 안정 추구, 그리고 은혜받는 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을 던지시 비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표어 그대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교인 배가 전도 운동에 1, 2, 3 순위 모두를 두자는 내용이었다.

우리 총현교회는 새해에는 은혜받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회 참석을 생활화 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공집회에 어떤 사유를 배제하고라도 참석해야 한다. 모임에 빠지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러지면, 개인의 신앙 성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평안도 얻기 어렵다. 사소한 일에 불평불만을 일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누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전도"에 주안점을 두어 총동원 전도, 노방 전도, 축호 전도, 마스크 전도 등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계적 규모로 어떻게 아름답게, 넓게, 예쁘게 지었는데, 빈 자리가 있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주님의 자상 명령이었으며,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앞에 나서서 산상보훈과 바울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셨다. 부름받았고, 대속의 은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부활 승천하시며 남기셨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는 안된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 이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웃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더불어 즐거워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나가야 하겠다.

세상일이 바빠졌다.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든데 남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하는 구차한 변명들은 아예 내놓지도 말자.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실 만한 "전도"에 내가 먼저 기수가 되어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는 92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교회는 금년 목표의 전도 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영아부로부터 나이 많은 소망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동원하여 전도하여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모든 공간에 충수가 나게 하고, 찬송이 터지게 하며, 기도의 우렁찬 메아리가 한국으로, 그리고 전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92년의 총현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교회로 매진해야 한다.

다음호 칼럼은 장하우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단기수련회 1월 7일과 8일에

본 교회는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명감과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역자·장로·안수집사 단기수련회를 오는 1월 7일 오후 6시에, 그리고 권사 단기수련회를 8일 낮 12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 단기수련회는 각 직분의 특성에 맞는 특강과 함께 합심기도 회로 진행된다.

각 직분자들은 기도로써 준비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전도위원회 각 부 임원 발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92년도 남녀전도부, 직능전도부, 농어촌전도부, 70인전도부의 부장과 각 전도회의 회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서기:박상준 회계:박문태

남녀전도부

부장:최상규 차장:이하영 바울

협의회장:안성영 베드로협의회장:

강봉수 요한협의회장:신광철 한나

협의회장:김용순 에스더협의회장:

최미정 루디아협의회장:강동화 마

리아협의회장:차경숙

직능전도부

부장:최무길 차장:최기홍 실업

인선교회장:남선우 법조인선교회

장:김광삼 교수전도회장:미정 학

원전도회장:미정 의료전도회장:손

철 군전도회장:김재명 특수전도회

장:김여순 문서전도회장:김상순

농어촌전도부

부장:김경철 차장:황영일 지교

회장:김경철 지원교회장:강 협 위

탁교회장:고병국

70인전도부

부장:김종구 차장:김춘권

오늘 IV부예배 후 공동의회

오늘 IV부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91년도 결산 보고와 92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본 교회 전 세례 교인의 참석을 바란다.

충헌프리즘

①...1991년 결산 보고서와 1992년 예산안이 당회와 제직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오늘 공동 의회에서 최종 인준되면 92년 살림살이는 이 예산안에 따라 집행되게 될 것이다.

예산안을 훑어보니 전년도에 비해 약 13.05 퍼센트가 인상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교육위원회와 전도위원회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회장의 진도 우선주의와 교육에

대한 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적절한 예산 편성인 것 같다. 기대를 걸어보자.

②...본교회 송구영 신예배가 1월 1일 0시에 본당에서 드려졌다. 새해 첫 날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느꼈다. 이 날 송구영신예배는 극동방송에서 생중계하여 전국으로 전파를 타고 복음이 전해졌다.

③...지교회(혹은 개교회라고도 함)가 위

새해부터 세례부 운영

금년부터 새가족부를 거친 학습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세례부에 참석하여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세

례를 받을 수 있다. 세례부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 30분이며, 장소는 교육관 212호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가 요망된다.

법에 준한 유권해석을 해본다.

④...예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청지기 수련회다, 교육이다 하여 모처럼의 공휴일(신년벽두)을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 위임목사의 방침에 따라 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을 당부하며, 1월 7일부터 단기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상당히 절친된 교회 행사이다.

⑤...1월부터 대학부 집회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507호에서 있다.

임목사 의식을 행할 때는 공동의회가 이를 의결하고 당회가 상회인 노회에 위임목사 허락을 청원하면, 노회는 임시 노회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노회가 허락된 이 사항에 대하여 노회원으로 하여금 위임국을 설치하고, 해당 지교회 당회와 협의를 거쳐 직접 위임식을 거행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충헌교회의 초대 위임목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이며, 제2대 위임목사는 신성종 목사가 된다.

혹 오해가 있을까 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

새해의 기원

우주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청보석 지구공은 무한한 재도를 달려 또 한 해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문명의 폐기물로 병들고 찌들어진 지구촌 숨을 할떡이며 종착역을 향하여 진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에덴동산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맑은 공기 맑은 빛 속에 꽃 피고 새 울며 물고기가 뛰노는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 우주의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구촌의 손님들은 깊은 잠 속에 혼혼히 빠져 있습니다. 향락의 잠, 교만의 잠, 안일의 잠, 미움, 질투, 시기, 욕심, 다툼의 잠 속에서 허황된 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천국의 자명종을 울려주소서. 새벽 종소리를 울려주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서둘러 하차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인류를 구원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구촌 한 구석 조그마한 한반도 한 조상 한 피마 한 말을 하면서도 40여년 동안 방문은 커녕, 서신 한 장 보내지 못하는 비극의 한반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새해에는 편지라도,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활짝 열어주소서.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비극의 땅, 동토의 땅에

따스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사상과 이념을 넘어 이해와 타산을 넘어 물보다 진한 피로 하나되게 하소서. 마음도, 오해도, 교만도, 불신도 활활 타는 사랑의 불길 속에 태우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을 용서하여주소서. 하나님을 몰랐던 죄, 배반한 죄, 무관심한 죄,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던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주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 길이 회개하게 하소서! 어서 돌아오게 하소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 지친 저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천추에 한을 남기고 눈을 감지 못한 채 하나씩 들쭉 지구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소서. 자유와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여주소서.

지뢰밭, 철조망, 땅굴진지로 황폐한 휴전선, 155마일 저 땅 위에 무궁화 꽃동산 아름답게 만들고 끊어진 철도, 도로, 항만, 항로, 탄탄대로 새로 잇고 농악을 올리면서 춤을 추게 하소서. 겨누던 총포리 입진강에 내던지고 서로서로 얼싸안고 용서와 화해의 눈물 후회와 결심의 눈물 강물처럼 흘러면서,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풍요의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잘나 받은 축복으로 착각한 이 백성들 자기 배를 두드리며 거만하던 이 백성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가파하던 이 백성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향락에 빠진, 흥청망청 이 백성들 선진국 문턱에서 발버둥치다가 스스로 마련한 덫에 걸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뉘우치게 하옵소서. 다시금 허리띠를 조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백성이 되게 하소서.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정신으로, 물질로써 세계를 지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네 번이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답니다. 하나님 참된 일꾼을 뽑게 하옵소서. 정직한 일꾼, 말보다 일을 더하는 일꾼, 욕심없고 봉사할 줄 아는 일꾼, 지혜롭고 덕망 있는 일꾼을 뽑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별을 운전하고 오실 예수님, 새로운 지구촌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소서.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새 출발을 하게 하소서. 새롭고 화망찬 소망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 소망, 새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후 일천구백구십이년 새해 아침에
제8교구 박철구 집사